



미 증시, 월마트발 호재에도 혼조세

미국 증시 리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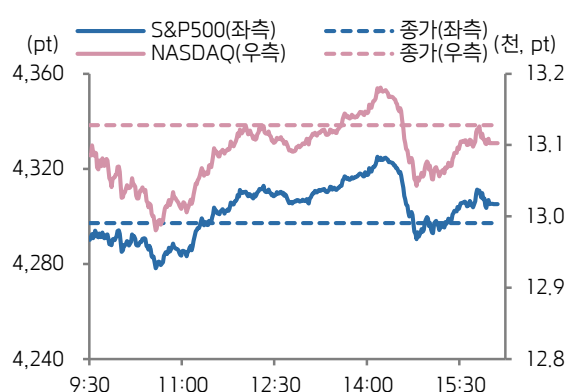
16 일(화) 미국 증시는 월마트 호실적 및 산업생산 호조에도, 주택지표 부진 속 7월 FOMC 의사록 경계심리 등이 차익실현 욕구를 자극하며 혼조세 마감(다우 +0.71%, S&P500 +0.19%, 나스닥 -0.19%, 러셀 2000 -0.04%).

미국 7월 주택착공건수는 전월대비 -9.6%(예상치 -2.1%, 전월치 2.4%) 감소하며 예상치를 크게 하회, 2021년 초 이후로 최대폭 감소. 월 건축허가건수는 전월대비 -1.3%(예상치 -3.3%, 전월치 0.1%) 기록. 집계측은 모기지 금리의 급격한 상승으로 주택시장이 둔화되었다고 언급. 미국 7월 산업생산은 전월대비 0.6%(예상 0.3%, 전월 -0.2%)로 양호, 3개월만에 증가. 제조업생산은 전월대비 0.7%(예상 0.3%, 전월 -0.4%) 증가했으며, 자동차 및 부품 생산이 전월대비 6.6%로 큰 폭 증가한 것에 기인.

한편 독일 8월 ZEW 서베이 예상지수는 -55.3(예상치 -52.7, 전월치 -53.8) 기록하며 추가 하락, 현재상황지수는 -47.6(예상치 -49.0, 전월치 -45.8)로 소폭 개선. 집계측은 여전히 높은 인플레이션과 추가적인 난방 및 에너지 비용으로 민간 소비 섹터의 실적 기대가 감소했으며, 이미 약해진 독일의 경제 성장세가 더 약해질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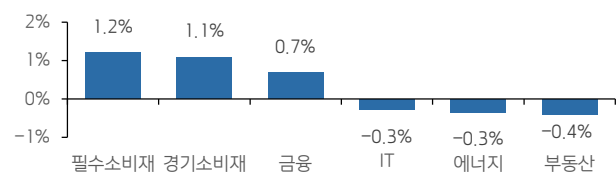
업종별로 필수소비재(+1.2%), 경기소비재(+1.1%), 금융(+0.7%) 업종 강세, 부동산(-0.4%), 에너지(-0.3%), IT(-0.3%) 업종 약세. 월마트(5.11%)는 임금 상승 압력을 높은 매출 성장세가 상쇄하며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 발표, 3분기 가이던스 역시 상향조정한 영향으로 강세, 다우지수 및 필수소비재 섹터 강세 견인. 7월 FOMC 의사록에서 예상보다 매파적인 내용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에 안전자산 선호심리 부각되며 미 국채 10년물 상승, 애플(-0.09%), 알파벳(-0.31%), 메타(-0.79%), 테슬라(-0.89%) 등 대형성장주 중심으로 나스닥 약세. 이란 핵협상 기대감 부각되며 유가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이전 수준까지 하락하며 에너지 섹터 약세.

S&P500 & NA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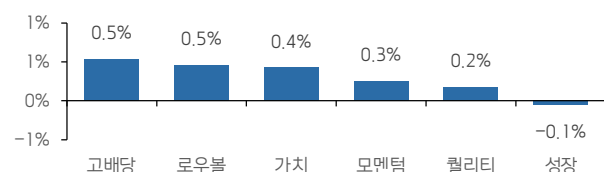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변화	지수	가격	변화
S&P500	4,305.20	+0.19%	USD/KRW	1,308.25	+0.45%
NASDAQ	13,102.55	-0.19%	달러 지수	106.50	-0.05%
다우	34,152.01	+0.71%	EUR/USD	1.02	-0.03%
VIX	19.69	-1.3%	USD/CNH	6.79	+0%
러셀 2000	2,020.53	-0.04%	USD/JPY	134.24	+0.01%
필라. 반도체	3,045.64	-1.03%	채권시장		
다우 운송	15,209.96	+0.74%	국고채 3년	3.065	-11.2bp
유럽, ETFs			국고채 10년	3.150	-12.7bp
Eurostoxx50	3,805.22	+0.41%	미국 국채 2년	3.257	+7.5bp
MSCI 전세계 지수	659.44	+0.05%	미국 국채 10년	2.804	+1.6bp
MSCI DM 지수	2,844.42	+0.07%	원자재 시장		
MSCI EM 지수	1,014.22	-0.08%	WTI	86.53	-3.22%
MSCI 한국 ETF	61.61	+0.08%	금	1789.7	-0.47%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

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	MSCI 한국 지수 ETF 는 +0.08% 상승, MSCI 신흥국 ETF 는 0.02% 하락. 유렉스 야간선물은 0.03% 하락. NDF 달러/원 환율 1 개월물은 1310.18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2 원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
주요 체크 사항	1. 월마트의 호실적 및 그에 따른 미국 소비 경기 호전이 국내 수출주에게 미치는 영향 2. 전거래일 동반 강세를 보였던 국내 대형 반도체주의 반등세 지속 여부 3. 기술적인 관점에서 코스피 20 주선 안착 여부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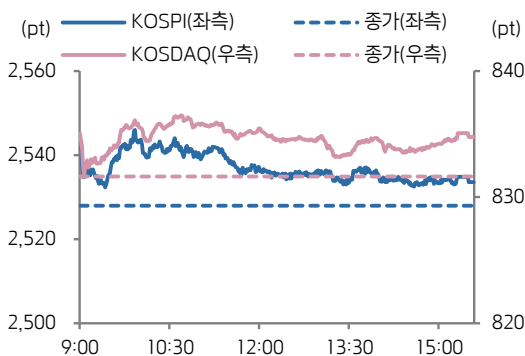
미국의 7 월 산업생산(+0.6%MoM)의 증가 전환(6 월 -0.2%, 예상 +0.3%)이나 2 분기 호실적(EPS 1.77\$, 예상 1.62\$)으로 주가 급등세를 보인 월마트(+5.1%)의 주가 급등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미국의 산업 및 소비 경기는 기존 우려했던 것보다 양호한 상황. 물론 이미 미국 경제는 기술적 침체(두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를 겪으면서 성장에 대한 기대치가 낮아진 상태였으며, 월마트 역시 지난 5 월, 7 월 두차례에 걸쳐 가이던스 하향 조정을 통해 시장의 눈높이를 낮춰 놓은 측면도 존재.

결국 향후 시장 참여자들의 입장에서는 경기 모멘텀 둔화 및 기업 이익 전망의 하향조정 추세가 언제쯤 반전이 이루어질지가 관건. 9 월까지의 경제지표, 3 분기 실적시즌까지 지켜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추세 반전을 논하기에는 이른 감이 있어 보임. 다만, 현재 미국, 한국 등 주요국 증시의 동반 랠리가 시사하는 것처럼, 대부분 시장 참여자들은 경제나 기업이익 단에서 최악의 상황이 지나간 것에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이로 인해 저점 매수세, 숏커버링 매수세가 동반 유입되면서 증시 모멘텀을 만들어 내고 있는 것으로 판단. 최근 급반등에 따른 과열 부담으로 단기 숨고르기 장세는 출현할 수 있겠지만, 당분간 주가의 하방 경직성은 견조하게 유지될 것으로 전망.

전일 국내 증시는 중국 실물 경기 리스크 확대, 원/달러 환율 급등 부담에도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기대감 속 국내 대형 반도체주 동반 강세 등으로 소폭 상승(코스피 +0.2%, 코스닥 +0.4%). 금일에는 월마트 호실적 발 미국 소비경기 호전 기대감, 국제유가 추가 하락에 따른 에너지 인플레이션 완화 전망 등에 힘입어 상승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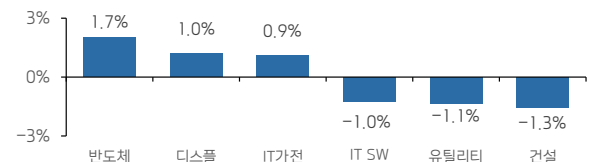
지난 연휴기간에도 그랬지만, 최근 코스피는 미국 나스닥이나 S&P500 에 비해 반등탄력이 상대적으로 약했다는 점이 국내 증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아쉬운 상황. 하지만 미국 증시와 달리 코스피는 지난 7 월 6 일(-2.1%) 이후 현재까지 1% 넘는 조정을 겪지 않은 채 점진적으로 상승해왔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 저 베타의 성격이 국내 증시에 존재한다는 점은 향후 주요국 증시들에서 하방 압력을 받는 이벤트가 발생할 시 한국이 상대적으로 하단이 강해질 수 있음을 시사. 또한 현재 코스피는 차트 상 2021 년 8 월 이후 처음으로 20 주선(주봉, 주간기준)을 터치한 상황. 2021 년 12 월과 2022 년 6 월에도 20 주선 돌파를 시도했다가 터치 자체도 못하고 실패했던 경험이 있었지만, 금주에 돌파를 성공할 경우 기술적인 관점에서는 현재의 단기 안도랠리가 연장될 수 있다고 판단.

KOSPI & KOSDAQ 일종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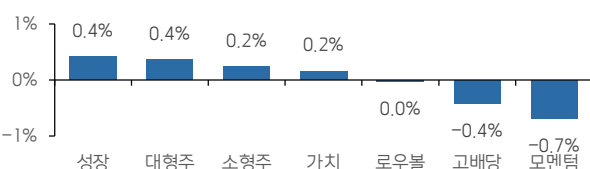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을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을



자료: Bloomberg, Quantiwise, Enguide,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